

『동의보감·신형』과 『의방유취·양성문』의 원문 비교연구

¹장재립, ²김상범, ³김남일, ³차웅석

¹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역사학과, ²경희대학교 대학원 기초한의학과, ³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A comparative study of 『Donguibogam』 『Shinhyeong』 and 『Euibangyoochui』 『Yangseongmun』 focusing on the original text

¹Zhang Zili, ²KIM Sang-beom, ³Kim Namil, ³CHA Wung-seok

¹Dept. of History in Korean Medicine, Graduate School, Kyung Hee University,

²Dept. of Science in Korean Medicine, Graduate School, Kyung Hee University

³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The 『Shinhyeong(Body)』 chapter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of the 『Donguibogam(Treasured Mirror of Eastern Medicine)』 and can be regarded as the outline of text as a whole. This research compares this chapter with the 『Yangseongmun(Nourishing the inner nature)』, chapter of 『Euibangyoochui(Classified Assemblage of Medical Prescriptions)』 and shows how the two books are related through these two chapters. This research shows that, relating to nutrition literature, the most frequently cited contents in 『Donguibogam』 『Shinhyeong』, from 『Euibangyoochui』 『Yangseongmun』, occurred through 『Qianjinfang(千金方)』(13 times) and 『Quxianhuorenxin(驪仙活人心)』(7 times). Meanwhile, only the contents related to internal training, such as 『Xiuzhenmijue(修真秘訣)』(7 times) and 『Jindandacheng(金丹大成)』(7 times), were selected in 『Donguibogam』 『Shinhyeong』, from 『Euibangyoochui』 『Yangseongmun』. Through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all seven volumes of 『Euibangyoochui』 『Yangseongmun』 were cited in 『Donguibogam』 『Shinhyeong』, so it can be said that 『Donguibogam』 『Shinhyeong』 was greatly influenced by 『Euibangyoochui』 『Yangseongmun』. We hope this research will serve as the basis for future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onguibogam』 and 『Euibangyoochui』.

Key words : Donguibogam(Treasured Mirror of Eastern Medicine), Shinhyeong(Body), Euibangyoochui(Classified Assemblage of Medical Prescriptions), Yangseongmun(Nourishing the inner nature), History of Korean Medicine

I. 서론

양생(養生)은 정신·육체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¹⁾ 양생사상은 동양문화권에서 생명을 활성화하고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규율하는 것을 뜻한다.²⁾ ‘양생’이란 개념에 대한 문헌 기록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장자(莊子)·

양생주(養生主)』³⁾이다. 『장자』의 ‘양생’ 개념에 영향을 미친 것은 『노자(老子)』의 ‘섭생(攝生)’⁴⁾이다. 양생에는 ‘양형(養形)’과 ‘양신(養神)’이 있는데, 『소문(素問)』·『영추(靈樞)』·『난경(難經)』·『명당(明堂)』·『맥경(脈經)』 등 중국 고대 의서에는 대개 오장(五臟)이나 경맥(經脈), 기혈영위(氣血營衛), 유험(俞穴), 맥법(脈法), 자법(刺法) 등의 의학적인 기술로 구성되어 있어 ‘양형’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

한편, 양성(養性)이란 정신과 성정(性情)을 수양하는 것

접수 ▶ 2023년 05월 08일 수정 ▶ 2023년 05월 30일 채택 ▶ 2023년 05월 24일

교신저자 ▶ 차웅석,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Tel : 02-961-2274 E-mail : chawung@khu.ac.kr

- 1)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동양의학대사전 6』. 서울: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514. (이하 『동양의학대사전』으로 표시함.)
- 2) 瀧澤 利行. 「日本における養生論の文化」. 障害史研究. 2020;1:15.
- 3) 문혜군은 “훌륭하다. 내가 포정의 말을 듣고 養生의 도를 얻었다”고 말했다. (文惠君曰 善哉 吾聞庖丁之言 得養生焉) (『欽定四庫全書』 子部/道家類/莊子注/卷二 養生主第三)
- 4) 대저 듣건대 섭생을 잘하는 자는 육지로 다녀도 외뿔돼스나 호랑이를 만나지 않고 군대에 들어가도 갑옷과 무기를 착용하지 않는다. (蓋聞善攝生者 陸行不遇兕虎 入軍不避甲兵) (『欽定四庫全書』 子部/道家類/老子解/卷下 出生入死章第五十)
- 5) 篠原 孝市. 「臨床に活かす古典(No.48)養生」. 医道の日本. 2016;75(4):173.

이다.⁶⁾ 『맹자(孟子)·진심장구상(盡心章句上)』⁷⁾에 의하면 여기에는 ‘양생’과 함께 ‘수신(修身)’ 개념도 포함되어 있다. ‘양성’이란 개념은 주로 정신적인 측면에서 자연스러운 본성을 기르는 것을 말한다.⁸⁾ 따라서 양성을 ‘양심(養心)’·‘수심(修心)’이라고도 한다.

한국에는 고대부터 양생에 대한 전통이 있었다. 종래 존재했던 선가(仙家)의 양생학 전통은 중국에서 도가적 양생학이 전해지면서 독자적인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이런 흐름은 의학에도 영향을 미쳐, 양생학은 의학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우리는 이를 『의방유취』·『동의보감』 등 의서에 나타난 양생론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조선 초기까지 양생만을 전문적으로 논한 의학 서적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며, 단지 문(門)으로 설정되어 특정한 전문분야로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중기에 이르러 『동의보감』이 등장하면서 양생의학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었다. 조선 후기로 넘어가며 양생의학은 치료 전문의 의학 지식, 건강 관리와 예방으로 나뉘었다.⁹⁾

『의방유취』는 중국 명나라 초기까지의 저서들을 망라하였는데, 그 중 대부분이 의서인 한편, 약간의 도교·불교 서적과 일용백과전서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의방유취』의 편제 방식은 중국 명나라 때의 『보제방(普濟方)』과 편제 구성이 유사하면서도 자신만의 특색을 가지고 있고 당시까지 조선에서 수집한 중국·한국의 의서들을 모두 모아 동아시아 의료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깊은 의미가 있다.¹⁰⁾ 또한, 도교의학과 불교의학의 내용도 수용되어 있어 당시의 의학 조류(潮流)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의한 고전이다.

『동의보감』은 최초로 양생과 의학을 하나의 체계로 엮어 전체를 양생의학적인 면모로 일신한 의서이다. 기존의 의서가 양생의학에 대한 논술을 묶은 것과 달리, 『동의보감』은

의서 전체의 흐름을 양생의학에 두었다.¹¹⁾ 『동의보감』 첫 편인 「내경편(內景篇)」의 첫 번째 「신형(身形)」은 『동의보감』의 성격과 저자 허준의 의학사상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門)이다. 『동의보감』 「신형」문은 ‘정·기·신’ 양생의 총론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정·기·신」문과 더불어 ‘몸의 근본’을 논한 것이다.¹²⁾

지금까지 『동의보감』에 대한 의사학적 연구가 이미 풍부한 성과를 거둔 것에 반해, 『의방유취』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최근 3년 『의방유취』에 대한 연구는 『의방유취』의 소갈문과 부인문에 대한 연구¹³⁾, 『의방유취』에 인용된 중국 상한·금궤 계열 문헌에 대한 고찰¹⁴⁾, 그리고 인삼의 『의방유취』에서의 약물 배오(配伍) 연구¹⁵⁾ 총 5편만 나와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동의보감·신형』의 상당 부분은 『의방유취』에서 관련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보이고 직접 ‘類聚’로 표시된 인용문도 적지 않다.¹⁶⁾ 필자 또한 『동의보감·신형』을 연구하는 데 『의방유취·양성문』에서 유사한 인용문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의보감·신형』에 『의방유취』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아직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동의보감·신형』과 『의방유취·양성문』의 원문을 서로 비교하여, 『동의보감·신형』에서 『의방유취·양성문』을 어떻게 인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동의보감』에 미친 『의방유취』의 영향을 확인하고, 나아가 양생의학에서 두 의서의 연관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6) 『동양의학대사전 6』, p. 519.

7) “孟子曰 盡其心者 知其性也 知其性 則知天矣 存其心 養其性 所以事天也 夭壽不貳 脩身以俟之 所以立命也”(『欽定四庫全書』經部/四書類/四書章句集注 孟子集注/卷七 盡心章句上)

8) 瀧澤 利行. 앞의 논문. p. 17.

9) 安相佑, 金南一. 「韓國 養生醫學의 歷史」. 大韓豫防韓醫學會誌. 2008;12(2):159-167.

10) 차웅석, 김동욱. 「朝鮮의 主要 國家刊行醫學書의 編制構成과 疾病分類認識에 대한 概說의 研究」. 韓國醫史學會誌. 2019;32(2):89.

11) 安相佑, 金南一. 앞의 논문. p. 164.

12) 김남일, 신동원, 여인석. 『(한권으로 읽는) 동의보감』. 서울:들녘. 1999:17. 정창현, 백유상, 위보영, 장우창. 「『東醫寶鑑』의 精氣神 養生法과 그 특징」.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7;30(1):137.

13) 王逗逗, 趙進喜. 「《醫方類聚·消渴門》中治療消渴病的用藥規律研究」. 環球中醫藥. 2020;(13):378-383. 趙倪娟, 戴娜, 羅壽, 王帥虎, 譚輝, 謝宇 외. 「以《醫方類聚·消渴門》爲例探討知識元標引在方證和藥證規律研究中的應用」. 南京中醫藥大學學報. 2022;(38):635-641. 黃英華, 梁永宜. 「《醫方類聚·婦人門》文獻價值探討」. 中醫藥文化. 2020;(15):85-92.

14) 黃英華, 梁永宜. 「朝鮮《醫方類聚》引用中國傷寒、金匱類文獻考」. 北京中醫藥大學學報. 2020;43(5):381-385.

15) 吳俊良, 王佳, 王若琳, 王位, 朱浩, 陳曦. 「人參在《醫方類聚》中的配伍規律研究」. 中國中醫藥圖書情報雜誌. 2020;44(3):9-12.

16) 김남일, 신동원, 여인석. 앞의 책. p. 43. 安相佑. 「『醫方類聚』가 『東醫寶鑑』編纂에 미친 影響」. 韓國醫史學會誌. 2000;13(2):93-107.

II. 본론

1.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본고에서는 『동의보감·신형』과 『의방유취·양성문』에서 유사한 내용을 찾아내어 서로 원문을 비교하였다. 원문을 살펴볼 때 『구선활인심(懼仙活人心)』 등 양생의학 문헌, 그리고 도교의학 문헌도 함께 참조하였다.

먼저 『의방유취』는 다음과 같은 주요 판본이 현존한다.¹⁷⁾

- 1) 일본 궁내청 서릉부 도서관에 소장된 1477년 조선 초간본(初刊本)¹⁸⁾.
- 2) 일본 분쿄(文久)원년(1861) 에도의학관(江戸醫學館) 의관(醫官)인 키타무라 나오히로(喜多村直寛)에 의해 복간(復刊) 학훈당취진판(學訓堂聚珍版).¹⁹⁾
- 3) 1965년 동양외과대학(東洋醫科大學)에 의해 중간(重刊)된 필사본.²⁰⁾
- 4) 1976-1980년 북한 동의과학원에서 출판한 원문 필사 및 번역본.
- 5) 1981년 중국 저장성 중의약연구원(당시 浙江省中醫研究所)에서 출판한 간체자 교정본 및 2006년 중교본(重校本).

본 연구에서는 주로 경희대판 『의방유취』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인민위생판과 취진판 『의방유취』는 참고 대상으로 삼았다. 경희대판·인민위생판은 모두 일본 학훈당취진판 『의방유취』를 저본으로 삼아 출판되었다. 『의방유취』에 대한 연구는 조선원판을 정본(正本)으로 삼아 명확하게 검토되어야 연구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조선원판 『의방유취』도 참조하였다.²¹⁾

『동의보감』은 남산당의 『(原本)東醫寶鑑』²²⁾을 사용하였다.

2. 『의방유취·양성문』의 구축 특징

『의방유취』는 266권으로 구성되어 매우 방대한 의서이다. 그 중 권199부터 권205까지 7권에 달하는 분량은 모두 「양성문」으로 분류되어 있다. 총 7권으로 이뤄진 「양성문」은 『의방유취』 전체 분량의 1/20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 의서들이 양생에 관한 내용을 내과의 범주에서 다룬 것과 달리 『의방유취』는 양생 관련 분야를 하나의 독립된 분과로 설정하고 있다. 『의방유취·양성문』의 구체적인 구성은 아래 표 1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의방유취·양성문』의 인용서를 주제별로 분류하고, 다시 인용된 순서대로 나열하면 표 2와 같다.

표 1. 『의방유취·양성문』 권별 인용서²³⁾

권별	양성문	인용서
卷199	養性門一	千金方 修真秘訣一
卷200	養性門二	修真秘訣二 寶丹要訣一
卷201	養性門三	寶丹要訣二 瑣碎錄 朱氏集驗方 脾胃論 三元延壽書 王氏集驗方 壽親養老書 事林廣記 山居四要 懼仙活人心
卷202	養性門四	神隱 福壽論 金丹大成 千金方 千金翼方 聖惠方一
卷203	養性門五	聖惠方二
卷204	養性門六	修真秘訣 大全本草 是齋醫方 瑣碎錄 得效方 肘後方 延壽書 必用之書 經驗秘方 壽親養老書 神效名方 事林廣記 山居四要 運化玄樞 壽域神方 衛生易簡方
卷205	養性門七	養性禁忌
		養性導引
		金匱方 千金方 千金翼方 千金月令 聖惠方 四時纂要 修真秘訣 瑣碎錄 延壽書 事林廣記 山居四要 運化玄樞
		千金方 千金月令 瑣碎錄 延壽書 經驗秘方 懼仙活人心

17) 安相佑, 『『醫方類聚』의 데이터베이스構築』, 大田:韓國韓醫學研究院 研究報告書, 1998. 김은희, 『고려의학과전해제』, 평양:의학과학출판사, 2014: 46. 眞柳誠, 「目で見る漢方史料館(56) 現存唯一無二の『醫方類聚』初版 宮内廳書陵部に蔵せられる朝鮮古活字本」, 漢方の臨床, 1992;39(10):1248-1250. 眞柳誠, 「目で見る漢方史料館(58) 喜多村直寛による『醫方類聚』の復刊」, 漢方の臨床, 1992;39(12):1488-1490.

18) 이하 '조선원판'으로 약칭함.

19) 이하 '취진판'으로 약칭함.

20) 이하 '경희대판'으로 약칭함.

21) 申舜植, 崔桓壽, 『『醫方類聚』에 대한 版本 研究』, 韓國韓醫學研究院 論文集, 1997;3(1):13. 현재 국내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만 일본 궁내청에 의한 조선원판의 마이크로필름 자료가 소장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 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일본 취진판 『의방유취』에는 조선원판을 전사(傳寫)할 때 생긴 오자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 경희대판 『의방유취』에도 취진판을 전사하면서 생긴 새로운 오자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의방유취』 원문 이미지를 확보하여 조선원판에 근거한 원문을 구축·교정하는 작업이 매우 시급하다.

22) 허준, 『(원본)동의보감 <신증판>』, 서울:남산당, 1987.

23) 강세구, 『醫方類聚의 養性門에 對한 研究』,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5-6.

표 2. 『의방유취·양성문』 주제별 인용서

양생 이론	千金方 修真秘訣一 修真秘訣二
연단술	寶丹要訣一 寶丹要訣二
양성	瑣碎錄 朱氏集驗方 脾胃論 三元延壽書 王氏集驗方 壽親養老書 事林廣記 山居四要 躡仙活人心 神隱 福壽論 金丹大成
양생 복약법	千金方 千金翼方 聖惠方一 聖惠方二 修真秘訣 大和本草 是齋醫方 瑣碎錄 得效方 肘後方 延壽書 必用之書 經驗秘方 壽親養老書 神效名方 事林廣記 山居四要 運化玄樞 壽域神方 衛生易簡方
삼가야 할 것	金匱方 千金方 千金翼方 千金月令 聖惠方 四時纂要 修真秘訣 瑣碎錄 延壽書 事林廣記 山居四要 運化玄樞
섭생·도인법	千金方 千金月令 瑣碎錄 延壽書 經驗秘方 躡仙活人心

『의방유취·양성문』의 인용서는 대체로 의서, 도가·양생 서적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의서는 『천금방』·『천금익방』·『주씨집험방』·『비위론』·『왕씨집험방』·『성혜방』·『대전본초』·『시재의방』·『득효방』·『주후방』·『경험비방』·『신행명방』·『위생이간방』·『금계방』 등이 있다. 도가·양생 서적은 『수진비결』·『보단요결』·『금단대성』·『삼원연수서(三元延壽書)』·『수친양로서(壽親養老書)』·『구선활인심』 등이 있다.

『의방유취』 「양성문」1과 「양성문」2는 양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며, 「양성문」3과 「양성문」4는 양생에 관한 내용 및 「양성문」1·「양성문」2를 보충한 것이며, 「양성문」7은 ‘양성금기’와 ‘양성도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양성문」을 마무리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양성문」1의 「천금방」부터 「양성문」2의 「수진비결」2까지는 양생 이론에 관한 내용이다. 「양성문」1에 「천금방」의 「조기편(調氣篇)」과 「수진비결」1의 「곡신론 병육자결(谷神論并六字訣)」은 내단 중 토납(吐納)에 관한 내용을 소개한다. 「수진비결」1의 「태상내관경(太上內觀經)」·「옥황성태신용결(玉皇聖胎神用訣)」·「존수삼일론(存守三一論)」·「존수삼일결(存守三一訣)」 등은 도가의 시각에서 인체를 살펴보고 있고, 양생법 자체도 도교 수행의 방법과 매우 유사하므로 도교적인 색깔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수진비결」1의 「양생태식결(養生胎息訣)」을 비롯하여 양생 기공에 관한 내용도 소개한다. 「양성문」2의 「수진비결」2 내용은 내단에 관한 것으로서 대부분 「양성문」1의 내용을 보완한 것이다. 그중에 나타난 각 장부에 대한 수양법은 도가적 장부관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²⁴⁾

「양성문」2의 「보단요결」1부터 「양성문」3의 「보단요결」2까지는 연단술에 관한 내용이다. 「보단요결」1은 외단에 관한 내용으로, 주로 유형의 물질로 금단(金丹)을 제조하는

법을 설명한다. 한편, 「양성문」3의 「보단요결」2에는 금단을 이루는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는데, 비유형(非有形)의 형이상학적(形而上學的)인 색깔이 드러난다.²⁵⁾

「양성문」3의 「쇄쇄록」부터 「양성문」4의 「금단대성」까지는 양생에 관한 내용이다. 「쇄쇄록」의 「섭양(攝養)」편 내용은 생활면에서 정서를 안정시킨다는 양생의 방법으로 신체를 섭양함으로써 양생이 이루어짐을 밝혀 놓은 것이다. 「주씨집험방」의 「손진인양생명(孫眞人養生銘)」에 내재한 사상도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마지막 「구선활인심」까지 양생을 위해 양생의 여러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²⁶⁾ 「양성문」3은 전체적으로 앞의 양생 외단과 뒤의 양생 수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가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삼고 있는 것이 그의 특징이다.

「양성문」4의 「천금방」부터 「양성문」6의 「위생이간방」까지는 양생 복약법에 관한 내용이다. 「양성문」4는 「천금방」·「천금익방」·「성혜방」1 등의 의서를 통해 양생 약이(藥餌)를 소개한다. 「양성문」5는 「성혜방」1과 이어져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성혜방」2로 구성된다. 양생에 관한 일반 약물을 소개하는 동시에 「신선제명방(神仙諸名方)」과 「단약서(丹藥序)」에서 단약을 만드는 방법도 제시한다. 마지막 「약주서(藥酒序)」에는 약술의 의의와 효능에 대해 밝히며 제작법을 소개한다.

「양성문」6에서 「수진비결」의 「신선복이제방(神仙服餌諸方)」에는 단약을 복용하면서 동시에 주문(呪文)을 외우는 방법도 제시한다. 뒤이어 「신선제세제방(神仙濟世諸方)」에는 단약과 약처방을 함께 실었다. 「대전본초」와 「시재의방」도 대략 단약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쇄쇄록」·「주후방」·「필용지서」·「경험비방」·「사림광기」·「산거사요」·「위생이간방」은 일부 혹은 전체적으로 벽곡(辟穀)에 대해 소개

24) 강세구. 위의 학위논문. p. 132-136.

25) 강세구. 위의 학위논문. p. 136-137.

26) 강세구. 위의 학위논문. p. 139.

한 바 있다.

『양성문』7은 ‘양성금기’와 ‘양성도인’ 두 부분으로 나누어 양생을 실천할 때 삼가야 할 것과 섭생·도인법 등을 소개한 내용이다. 「천금방」의 「황제잡기법(黃帝雜忌法)」, 「천금익방」의 「금경(禁經)」·「지금제계법(持禁齋戒法)」·「수금법(受禁法)」 등 편은 양성에 속한 내용을 많이 소개한다. 「양성도인」은 「구선활인심」의 도인법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의방유취·양성문』에는 손사막(孫思邈)(손진인, 孫真人)의 「천금방」이 제일 먼저 실려 있고 인용된 「천금방」 본문은 「양성」·「도림양성」편으로 시작된다. 『의방유취』는 손사막의 ‘양성’을 가져와 편명을 ‘양성문’으로 지은 것이라고 사료된다. 『의방유취·양성문』은 도가·양생 서적에 나타난 다양한 양생법을 수록하며 양생 약물은 약물과 주치증만 기록한 것보다 약물과 도인법을 함께 엮어 쓴 경우가 많다.

『의방유취·양성문』의 인용서에서 주목할 만한 책으로 『삼원참찬연수서(三元參贊延壽書)』·『구선활인심』 등이 있다. 이 책들은 『의방유취』 편찬을 전후하여 들어왔고 조선에서 다시 간행해 사대부들 사이에 수양서(修養書)로써 널리 읽혔다.²⁷⁾

『삼원참찬연수서』²⁸⁾은 『의방유취』 「인용제서(引用諸書)」에는 ‘延壽書’로 표시되며 본문에는 ‘延壽書’ 혹은 ‘三元延壽書’로 되어 있다.²⁹⁾ 이 책은 5권으로 구성되어 있어 원나라 때 이봉비(李鵬飛)가 지은 책이다. 이 책은 섭생과 연년(延年)의 도(道)를 논한 것이다.³⁰⁾ 『도장(道藏)』에도 수록되었는데 책 이름은 『삼원연수참찬서(三元延壽參贊書)』로 되어 있다.³¹⁾ 이 책은 세종 20年(1438)에 전주에서 개간(開刊)되었다는 기록이 있어 일찍이 조선에 전해졌음을 알 수

있다.³²⁾ 『의방유취』보다 앞서 출판한 조선시대 관찬의서인 『향약집성방』에도 『삼원연수참찬서』가 인용되어 있다.³³⁾

『구선활인심』은 『의방유취』 「인용제서」에는 ‘臞仙活人心’로 수록되었고 『양성문』을 비롯하여 『의방유취』 15개 문에 걸쳐 인용되었다.³⁴⁾ 이 책은 보통 『활인심방(活人心方)』, 『활인심법(活人心法)』이란 약칭으로 알려져 있다. 『동의보감』에는 『臞仙活人心』의 인용문 뒤에 ‘活心’, ‘活人心’, ‘活人心方’, ‘臞仙’로 출처가 표시되고 “臞仙曰”로 시작하는 문장도 많이 보인다. 이 책은 중국 명나라 주권(朱權)이 저술하여 14세기 말에 간행된 양생학서이며 구선은 저자의 호(號)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5가지 판본이 현존하는데 명간본(明刊本) 1종, 조선 간본 2종, 일본 간본 1종, 일본 초본(抄本) 1종이 있다.³⁵⁾ 조선 간본은 가정(嘉靖)년간에 간행된 안현본(安玄本)과 경주본(慶州本)(1550년 간)의 두 판본이 현존한다. 이 외에 주권이 저술한 『신은(神隱)』·『운화현추(運化玄樞)』·『수역신방(壽域神方)』도 『의방유취·양성문』의 인용서에 들어 있다.

『의방유취·양성문』에 기록된 양생의학에 관한 내용은 당시 중국·한국에 산재해 있던 양생의학 분야의 진전된 연구 성과들을 총망라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3. 『동의보감·신형』과 『의방유취·양성문』의 원문 비교

『동의보감·신형』의 내용을 주제별로 나누어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³⁶⁾

27) 安相佑, 金南一. 앞의 논문. p. 163.

28) 明나라 胡文煥이編輯한 『格致叢書』에 收錄된 이 책에는 ‘三元參贊延壽書序’라는 序文이 있어 李鵬飛의 自序로 알고 있으므로 原書의 이름은 『三元參贊延壽書』일 것임. (元·李鵬飛 編, 『三元參贊延壽書』: 曹洪欣總主編, 『中醫養生大成 第1部 養生通論 上』, 福州:福建科學技術出版社, 2012: 427. 참조.)

29) ‘延壽書’: 『醫方類聚』 卷98 「腳氣禁忌」, 卷204 「養性門六」, 卷205 「養性門七」 養性禁忌 및 養性導引, 卷227 「婦人門二十二」 妊娠禁忌, 卷266 「小兒門二十八」 禁忌. ‘三元延壽書’: 『醫方類聚』 卷201 「養性門三」.

30) 胡孚琛主編, 『中華道教大辭典』, 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353.

31) 張繼禹主編, 『中華道藏 第23冊』, 北京:華夏出版社, 2014:730. 그 외에 慶熙大 『동양의학대사전』에는 ‘三元延壽參贊書’라는 단어만 수록됨. (『동양의학대사전 5』, p. 45.)

32) 三木榮, 『朝鮮醫書誌』, 大阪:學術圖書刊行會, 1973:193.

33) 『鄕藥集成方』 卷47 「折傷跌撲門·雷震死」에는 ‘三元延壽書’로 標示되어 있다. (俞孝通 盧重禮 朴允德, 『鄕藥集成方3』: 金信根 主編, 『韓國醫學大系5』, 서울:驪江出版社, 1992:460. 金南一, 「鄕藥集成方の引用文獻에 대한 研究」, 震檀學報, 1999;(87):206.)

34) 『구선활인심』은 全 2권. 上卷은 養生法으로, 治心, 導引法(附圖), 祛病延年六字法, 保養精神 및 保養飲食등의 內容이 들어 있다. 下卷은 玉笈 26方과 加減靈秘 18方을 輯錄하였다. 內容에 일부 道家의 養生적 觀點을 宣揚하고 있다. (『동양의학대사전 11』, p. 448.) 『의방유취』에서의 인용문은 諸風門, 傷寒門, 眼門, 齒門, 咽喉門, 血病門, 心腹痛門, 水腫門, 赤白濁門, 諸痢門, 解毒門, 癰疽門, 膏藥門, 雜病門, 養性門 총 15개 문에 나와 있다. (劉靑, 『朱權『活人心』의 朝鮮と日本における 伝播—諸本の比較を通して—』, 人間·環境學, 2018;27:237-254.)

35) 劉靑, 「『醫方類聚』 引 『活人心』 內容初探」, 『跨越邊際的古代東方醫學:對話與互動』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2018:140-145. 劉靑. 위의 논문.

36) 본 연구에서 『동의보감·신형』의 ‘形氣之始’부터 ‘先賢格言’까지의 원문만 다루었다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

표 3. 『동의보감·신형』의 구성

	주제	소제목
사람 몸의 형성과 삶	자연의 형성과 몸의 형성	形氣之始, 胎孕之始, 四大成形
	사람의 인생	人氣盛衰, 年老無子, 壽夭之異, 形氣定壽夭
나라를 다스리는 원리와 사람의 몸을 다스리는 것은 같은 원리이다		人身猶一國
정·기·신 보양의 근거와 방안		丹田有三, 背有三關, 保養精氣神
양생을 위해 상고성인의 가르침을 따르라		古有真人至人聖人賢人, 論上古天真, 四氣調神
마음을 비워 자연의 도에 동참하라		以道療病, 虛心合道, 學道無早晚, 人心合天機
양생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搬運服食, 按摩導引, 攝養要訣, 還丹內煉法
양생을 위한 금기와 선현의 격언		養性禁忌, 四時節宣, 先賢格言

『동의보감·신형』의 원문을 바탕으로 『의방유취·양성문』에서 이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문장을 찾아내어 서로 비교해 보았다. 먼저 『의방유취·양성문』에서 찾아낼 수 있는 『동의보감·신형』

의 원문을 대상으로 소제목과 본문의 첫 문장, 『의방유취·양성문』의 구체적인 출처를 아래 표 4로 정리하였다. 『의방유취·양성문』에 대한 『동의보감·신형』의 인용 특징은 비교에 기재하였다.

표 4. 『동의보감·신형』에 인용된 『의방유취·양성문』의 편명

『동의보감』 소제목	본문 내용	『의방유취』	인용서명	편명	비고
形氣定壽夭	類纂曰穀氣勝元氣	養性門三	朱氏集驗方	養性之術	
人身猶一國	抱朴子曰一人之身一國之象也	養性門一	千金方	養性	
丹田有三	仙經曰腦爲髓海上丹田	養性門一	修真秘訣(一)	存守三一訣	『동의보감』 ³⁷⁾ 再編輯
背有三關	仙經曰背後有三關	養性門四	金丹大成	金丹問答	
保養精氣神	臞仙曰精者身之本	養性門四	金丹大成	金丹問答	『보감』 再編輯
以道療病	臞仙曰古之神聖之醫	養性門二	修真秘訣(二)	保精神論	『活人心·保養精神』 직접 인용
學道無早晚	又曰至人治於未病之先				『活人心』 序文 部分 직접 인용
	延壽書曰人者物之靈也	養性門六	延壽書	神仙救世却老還童眞訣	
人心合天機	還丹論曰道以心爲用	養性門四	金丹大成	金液還丹論	拔萃 引用
	橐籥歌曰天上日頭地下轉	養性門四	金丹大成	橐籥歌	拔萃 引用
搬運服食	養性書曰凡人修養生之道	養性門四	神隱	攝生之道	拔萃 引用
	胎息論曰凡服食	養性門三	臞仙活人心	養生之法	
	又曰人能常食玉泉	養性門二	修真秘訣(二)	神仙雜術	
	臞仙曰漢蒯京	養性門一	千金方	養性	
按摩導引	又杜景升王眞常漱玉泉	養性門三	臞仙活人心	養生之法	『活人心·養生之法』 직접 인용
	養生書曰夜臥覺	養性門六	瑣碎錄	服食 ³⁸⁾	
	又曰每朝早起	養性門二	修真秘訣(二)	神仙雜術	
	又曰熱摩手心熨兩眼	養性門二	修真秘訣(二)	神仙雜術	
攝養要訣	臞仙有歌曰閉目冥心坐 ³⁹⁾	養性門三	臞仙活人心	養生之法	『보감』 再編輯
	太乙眞人七禁文曰一者少言語養內氣	養性門七	臞仙活人心	導引法	
	黃庭經曰子欲不死修崑崙 ⁴⁰⁾	養性門三	壽親養老書	保養	
	又曰養生之士唾不至遠	養性門三	三元延壽書	發櫛	
	嵇康曰養生有五難	養性門三	臞仙活人心	養生之法	
	孫眞人曰雖常服餌	養性門一	千金方	養性	
	又曰凡言傷者	養性門一	千金方	養性	
洞神眞經曰養生以不損爲延年之術	養性門一	千金方	道林養性		
	養性門一	千金方	養性		
	養性門三	事林廣記	修真旨要·防患補益		

37) 아래 『보감』으로 약칭함.

38) 『醫方類聚』 소제목은 ‘服玉泉法’, 본문은 ‘杜鼎升服玉泉’으로 시작함.

39) 『醫方類聚』에는 導引法의 맨 뒤에 그림 8장이 함께 실려 있는 반면 『東醫寶鑑』에는 導引法을 설명한 글만 인용되었다.

40) 『醫方類聚·五臟門九』(卷12) 「五臟門九·五臟導引」五臟六腑圖도 참조.

41) 『醫方類聚』卷160 「癩癩門」의 「癩癩禁忌·巢氏病源」도 참조. 「巢氏病源·風癩候」에는 ‘養生方云’으로 시작함.

42) ‘常眞子’는 『동의보감』의 오류. ‘眞常子’는 옳음.

還丹內煉法	金丹問答曰金液者金水也	養性門四	金丹大成	金丹問答	再編輯
	贈謨高士歌曰君且聽	養性門四	金丹大成	贈謨高士辭往武夷歌	
	問答曰還丹之要在於神水華池	養性門四	金丹大成	金丹問答	再編輯
養性禁忌	養生書曰善攝生者無犯日月之忌	養性門一	千金方	道林養性	再編輯
	又曰喜怒損志	養性門三	瑣碎錄	攝養·保練	
	眞誥曰眼者身之鏡	養性門二	修真秘訣(二)	保精神論	
四時節宣	抱朴子曰善攝生者常少思	養性門一	千金方	道林養性	拔萃 引用
	養生書曰春欲晏臥早起	養性門一	千金方	道林養性	
	又曰冬日凍腦	養性門一	千金方	道林養性	
	常以晦日浴	養性門一	千金方	居處法	
	凡人臥春夏向東 ⁴¹⁾	養性門一	千金方	道林養性	『보감』 의론 재구성
	凡大風大雨	養性門一	千金方	居處法	
	懼仙曰夏一季	養性門三	懼仙活人心	養生之法	
	眞人養生銘曰人欲勞於形	養性門二	修真秘訣(二)	眞人養生銘	
先賢格言	孫眞人枕上記曰侵晨一碗粥	養性門三	事林廣記	修真旨要·孫眞人枕上記	
	孫眞人養生銘曰怒甚偏傷氣	養性門三	朱氏集驗方	孫眞人養生銘	
	常眞子養生文曰酒多血氣皆亂	養性門三	朱氏集驗方	眞常子 ⁴²⁾ 養生	
	東垣省言箴曰氣乃神之祖	養性門三	脾胃論	省言箴	

아래 표 5에는 『의방유취·양성문』에서 『동의보감·신형』과 동일하거나 유사해 보이는 내용을 『동의보감』의 원문과 서로 대조해 보았다.⁴³⁾

표 4와 표 5를 보면, 『동의보감·신형』에서는 『의방유취·양성문』의 도교 양생 문헌(「수진비결」, 「금단대성」, 「사람광기」)을 인용할 때 원문의 일부 내용만 채택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동의보감·신형』은 「금단대성·금단문답」의 원문 내용을 편집하여 「단전유삼」, 「배유삼관」, 「환단내련법」에 수록하였다.

「천금방」 같은 의서의 경우, 원문을 발췌하여 의론을 다시 구성하였다. 또한, 『동의보감·신형』에서 출전은 「양생유찬(養生類纂)」, 「양생서(養生書)」, 「양성서(養性書)」 등으로 변경하거나 「수진비결」, 「금단대성」을 「선경(仙經)」으로 표기한 경우도 있다. 그 외 「구선활인심」은 일찍이 조선에 전해져서 많이 읽히기 때문에 『의방유취·양성문』 수록 내용을 참고하면서도 원서 내용을 직접 인용하기도 하였다.

다음에 『동의보감·신형』에서 『의방유취·양성문』의 각 권에 대한 인용 빈도는 표 6과 같다.

43) 지면의 제한으로 똑같은 원문이 생략되어 글자가 다르게 보인 내용만 실렸다.
 44) 『의방유취』는 ‘一’을 ‘壹’로 쓴 경우가 많음.
 45) 類聚 原版의 闕文일 경우 모두 ‘□’로 표시함.
 46) 『의방유취』 해당 부분과 글자 차이가 많으므로 실제 『活人心』을 직접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明)朱權編. 「活人心二卷/明刊本」. 『子海珍本編—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珍藏子部善本 26 醫家類』. 台北:台灣商務印書館股份有限公司. 2013:54-56.)
 47) ‘乾者, 純陽之卦也’라는 문장은 『周易參同契發揮』도 참조함. (『欽定四庫全書』 子部/道家類/周易參同契發揮/卷中.)
 48) 慶熙大版에만 보인 誤字임.
 49) ‘侵’은 聚珍版의 誤字임. 慶熙大版은 聚珍版과 같이 ‘侵’으로 되어 있음.
 50) 聚珍版, 慶熙大版은 “𩇛”로 되어 있음.
 51) 조선원판만 다름. 聚珍版, 慶熙大版은 『동의보감』과 같음.
 52) 聚珍版은 “大清眞誥”으로 되어 있어 “誥”은 “誥”의 誤字로 보인다. 이것이 일본 에도시대 학자들이 조선원판을 바탕으로 번각한 과정에서 생긴 오류라고 생각된다.
 53) 聚珍版 慶熙大版은 “膏竟則明銷”임.
 54) ‘權’은 ‘歡’의 異體字임. 慶熙大版 및 聚珍版 『의방유취』, 『사고전서』, 『비금천금요방』 모두 “無權”으로 되어 있음.
 55) 聚珍版은 “衰”로, 慶熙大版 및 『活人心』 明刊本은 “衰”로 되어 있음.
 56) 조선원판에서는 『동의보감』과 똑같이 “愼靜最爲貴”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愼靜最爲黃”의 “黃”은 “貴”의 誤字로 보인다. 慶熙大版은 聚珍版과 같이 “黃”으로 되어 있다.
 57) 慶熙大版에만 보인 誤字임.
 58) 聚珍版만 다름. 慶熙大版은 『동의보감』과 같음.

표 5. 『동의보감·신형』과 『의방유취·양성문』의 원문 대조

『동의보감』 출처	『의방유취』 출처	『동의보감』 원문	『의방유취』 원문	비고
形氣定壽夭	「養性門三·朱氏集驗方」	類纂曰 穀氣勝元氣	楊泉物理論曰 穀氣勝元氣	部分 引用. 出典 바뀜
人身猶一國	「養性門一·千金方」	一人之身	壹人之身 ⁴⁴⁾	
		四肢之別	四肢之列	
		則能治國矣	則能治國也	
		不可全也	不可存也	
		而易危	而易危也	
		而易濁	而易濁也	
丹田有三	「養性門一·修真秘訣一」	仙經曰 腦爲髓海 上丹田	(存守三一訣) 兩眉間爲上丹田	
		臍下三寸爲下丹田	臍輪三□ ⁴⁵⁾ 爲下丹田	
背有三關	「養性門四·金丹大成」	仙經曰背後有三關	問背後三關 答曰	(保精神論) ⁴⁶⁾ 精者神之本
保養精氣神	「養性門二·修真秘訣二」	耀仙曰 精者身之本	形者神之宅也	
		形者神之宅也	形者氣之宅	
		故神大用則歇	故神太用則歇	
		精大用則竭	精太用則竭	
		氣大勞則絕	氣太勞則絕	
		形之托者	形之託者	
		若氣衰則形耗	若氣衰則神耗	
		形者須神而立焉	形須神而立焉	
		有者無之館	有者無之營	
		倘不全宅以安生	莫不全宅以安主	
		則不免於氣散歸空	則不免氣散歸空	
		燭盡則火不居	燭靡則火不居矣	
		夫魂者陽也	故神者魂也, 降□於天	
		魄者陰也	魄者鬼也, 繼之於地	
		神能服氣	是以神能服氣	
		死則相損	死則□懸	
		飛沈各異	飛沈各別	
		譬如一根之木	何者? 譬如壹條之木	
		烟則上升	煙則上昇	
全其形則生	全□形則生			
以道療病	「養性門三·耀仙活人心」	精氣者萬物之體	精氣者萬氣之體	
		能療人之心	而能療人之心	
		是猶捨本逐末	是由捨本逐末	
		乃資於道	然後資於道	
		則心地自然清淨	心地自然清淨	
學道無早晚	「養性門六·延壽書」	則藥未到口	藥未到口	
		年到八八	人年八八	
		乾者純陽之卦也 ⁴⁷⁾	乾者六陽具而未知動作泄	
		卽返老還童	卽返老還少	
		馬自然到六十四歲怕老怕死	馬自然怕老怕死, 有六十四歲	
人心合天機	「養性門四·金丹大成」	晞之	晞之	
		則是特在一覺頃耳	則是時在一覺頃耳	
		還丹論曰	金液還丹論	部分 引用
搬運服食	「養性門四·神隱」	橐籥歌曰	橐籥歌	部分 引用
		養性書曰	攝生之道	部分 引用
	「養性門三·耀仙活人心」	此養生大略	此是養生之大略	
		瞑目	床上瞑目	
		呵出腹內舊氣	呵出腹內蕉 ⁴⁸⁾ 氣	
		然後停息	然後侵 ⁴⁹⁾ 息	

		下通腎竅	通腎竅		
		五藏	五臟		
		寅前爲之亦可	但寅前爲之亦可		
		없음	但枕不甚高可也	『보감』 삭제	
	「養性門二·修真秘訣二」	又曰 人能常食玉泉	道林曰 人能常食玉泉		
		早晨時	及早朝		
		禺中時	隅中時		
		夜半時	夜半		
		一日凡九次	壹旦夕凡九食之 每壹食		
		漱口嚥之	漱口咽之		
按摩導引	「養性門二·修真秘訣二」	養生書曰 夜臥覺	夜臥覺	『보감』 붙임	
		嚥唾九過	咽唾九過		
		又曰 每朝早起啄齒	每朝早起 啄齒并漱口		
		并漱津	并漱口		
		唾滿口嚥之	唾滿口咽之		
			令耳聰延年	令人耳聰延年	
	「養性門三·耀仙活人心」	又曰 熱摩手心	熱摩手心		
		熨兩眼	熨 ⁵⁰⁾ 兩眼		
		每二十遍	每二七遍		
		없음	無出於此, 亦能補腎氣也		『보감』 삭제
		連發際二七遍	連發際一七 ⁵¹⁾ 遍		
		없음	點點宜頻拭之		『보감』 삭제
		揩二三十遍	揩二三十數		
		以防聾聵	以防聾聵也		
		太乙真人七禁文曰	太乙真人曰		
	氣由神旺	氣由神住			
	黃庭經曰	此五者即黃庭經所謂			
		此五者所謂			
	子欲不死	子慾不死			
	修崑崙	修崑崙爾			
		終崑崙耳			
	謂 髮宜多櫛	真人曰 發宜多櫛			
		孫真人曰 發宜多櫛			
	齒宜數叩	齒宜數扣			
	氣宜精鍊	炁宜精煉			
攝養要訣		崑崙謂頭也	없음	『보감』 추가	
	「養性門一·千金方」	又曰養性之士	是以養性之士	部分 引用	
		養性有五難	養生有五難	『보감』 바뀜. 部分 引用	
		一難	壹難		
		神虛精散	神慮精散		
		孫真人曰	真人曰		
		常欲少勞	常欲小勞		
		夫流水不腐	且流水不腐		
	皆令損壽也	없음	『보감』 추가		
	又曰 凡言傷者	凡言傷者			
	謂久則損壽耳	謂久即損壽耳			
		氣弱體枯	氣弱体枯		
「養性門三·事林廣記」	防患補益則氣血有餘	防患補益, 氣自有餘	部分 引用		
	而神自足	氣即有餘, 則神足矣			
	自然長生也	自然長生久視也			
還丹內煉法	「養性門四·金丹大成」	金丹問答曰	問曰……答曰		
		贈謔高士歌曰	贈謔高士辭往武夷歌	部分 引用	
		頻吞嚥	頻咽		

		四體熏蒸	四體薰蒸	
		問答曰 還丹之要 在於神水華池	問曰 神水華池, 何也? 答曰 李筌云, 還丹之要, 在於神水華池	部分 引用. 내용 재구성
養性禁忌	「養性門一·千金方」	養性書曰 善攝生者	故善攝生者	『보감』 추가
		一日之忌	壹日之忌	
		一月之忌	壹月之忌	
		一歲之忌	壹歲之忌	
		冬無遠行	暮無遠行	
		夜不燃燭行房	暮無然燭行房	
		없음	暮常護氣也	
	「養性門三 瑣碎錄」	又曰 喜怒損志	喜怒損志	
	「養性門二·修真秘訣二」	眞誥曰	太清真誥 ⁵²⁾ 曰	部分 引用
		聽衆則隔閉	聽衆則聰塞	
		腦減則髮白	腦□□華白	
		精者人之神	精者□之神	
		明者身之寶	明者神之寶	
	「養性門一·千金方」	營競則明消	營竟則明銷 ⁵³⁾	
抱朴子曰 善攝生者		故善攝生者		
多笑則藏傷		多笑則臟傷		
妄錯昏亂		忘錯昏亂		
「養性門一·千金方」	憔悴無歡	憔悴無權 ⁵⁴⁾		
	「養生書曰 春欲晏臥早起	春欲晏臥早起	春欲晏臥早起	『보감』 추가. 문장 뒤바뀜
		晏起	雖言晏起	
又曰 冬日凍腦		又云 冬日凍腦		
「養性門一·千金方」	常以晦日浴, 朔日沐吉. 飢忌浴, 飽忌沐.	凡居家不欲數沐浴……飢忌浴, 飽忌沐……常以晦日浴, 朔日沐吉. 洗頭不宜用冷水淋……	拔萃 引用. 『보감』 문장 뒤바뀜	
「養性門七·山居四要」		(起居雜忌) 時行病新汗方解, 不可用冷水浴. 飢忌浴, 飽忌沐, 常以晦日浴, 朔日沐吉.	『보감』 문장 뒤바뀜	
「養性門一·千金方」	頭勿向北臥	頭勿北臥		
「養性門一·千金方」	凡大風大雨大霧大暑大寒大雪皆	凡在家及外行	拔萃 引用	
「養性門七·瑣碎錄」	須勿犯	人在家及外行		
四時節宣	「養性門一·千金方」	卒逢飄風暴雨	卒逢大飄風暴雨	
	「養性門七·瑣碎錄」		卒逢飄風暴雨	
	「養性門一·千金方」	震電昏暗	震電, 昏暗, 大霧,	
	「養性門七·瑣碎錄」			
	「養性門一·千金方」	皆是諸龍鬼神行動經過所致	此皆是諸龍鬼神行動經過所致	
	「養性門七·瑣碎錄」		皆是諸龍神經過	
	「養性門一·千金方」	燒香靜坐以避之	燒香靜坐, 安心以避之	
	「養性門七·瑣碎錄」		焚香, 安心靜坐避之	
	「養性門一·千金方」	不爾損人	待過後乃出. 不爾損人	
	「養性門三·懼仙活人心」	懼仙曰 夏一季	夏一季	
心旺腎衰		心旺腎衰 ⁵⁵⁾		
悉喫煖物		悉喫暖物		
腹中常煖者		腹中常暖者		
血氣壯盛也		蓋血氣壯盛也		
先賢格言	「養性門二·修真秘訣二」	眞人養生銘曰	眞人養生銘	
		漩尿	旋溺	
		一日	壹日	
		偏耽	徧耽	
	「養性門三·事林廣記」	孫眞人枕上記曰	孫眞人枕上記	

「養性門三·朱氏集驗方」	且莫貪色慾	且莫貪 ⁵⁷⁾ 色慾
	五臟	五臟
	常以手摩腹	常以手磨腹
	孫真人養生銘曰	孫真人養生銘
	思多太損神	思多大損神
	氣弱病相因	氣弱病相縈
	常令飲食勻	當令飲食均
	第一戒晨嘔	第壹戒晨嘔
	亥寢鳴天鼓	亥寢鳴雲鼓
	常須節五辛	常當節五辛
	常眞子養生文曰	眞常子養生
	暮餐不若晨餐	暮餐不若晨餐
	脾健	脾健 ⁵⁸⁾
	「養性門三·脾胃論」	東垣省言箴曰

표 6. 『의방유취·양성문』 각 권에 대한 『동의보감·신형』의 인용 빈도

『의방유취·양성문』	인용서명 및 편명		인용회수	『동의보감·신형』 세부 회수
養性門一	千金方	養性	5회	人身猶一國 1회 搬運服食 1회 攝養要訣 3회
		道林養性	6회	攝養要訣 1회 養性禁忌 2회 四時節宣 3회
		居處法	2회	四時節宣 2회
	修真秘訣(一)		1회	丹田有三 1회
養性門二	修真秘訣(二)		6회	保養精氣神 1회 搬運服食 1회 按摩導引 2회 養性禁忌 1회 先賢格言 1회
養性門三	瑣碎錄		1회	養性禁忌 1회
	朱氏集驗方		3회	形氣定壽夭 1회 先賢格言 2회
	脾胃論		1회	先賢格言 1회
	三元延壽書		1회	攝養要訣 1회
	壽親養老書		1회	攝養要訣 1회
	事林廣記		2회	攝養要訣 1회 先賢格言 1회
	懼仙活人心	(原書서문) ⁵⁹⁾		1회
養生之法		5회	搬運服食 2회 按摩導引 1회 攝養要訣 1회 四時節宣 1회	
養性門四	神隱	攝生之道	1회	搬運服食 1회
	金丹大成		7회	丹田有三 1회 背有三關 1회 人心合天機 2회 還丹內煉法 3회
養性門六	瑣碎錄		1회	搬運服食 1회
	延壽書		1회	學道無早晚 1회
養性門七	養性禁忌	瑣碎錄	1회	四時節宣 1회
		山居四要	1회	四時節宣 1회
	養性導引	懼仙活人心	導引法	1회

59) 『동의보감·신형』 「以道療病」에 나온 “又曰至人治於未病之先……未必不由因心而生也”라는 문장은 『活人心』의 서문인 “懼仙活人心序”의 일부 내용을 인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明·朱權 編著; 葉明花, 蔣力生 輯著. 『活人心法』. 『朱權醫學全書』. 北京:中醫古籍出版社. 2016:239.)

표 6에 따르면, 양생 관련 문헌에서 『의방유취·양성문』의 「천금방」(13회)과 「구선험인심」(7회)이 『동의보감·신형』에 가장 많이 인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중 「천금방」의 「도림양성」편(6회), 「양성」편(5회), 「거처법」편(2회) 및 「구선험인심」의 「양생지법」편(5회)은 『동의보감·신형』에서 인용도가 높은 4편임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의방유취·양성문』에 수록된 「주씨집협방」(3회), 「쇄쇄록」(3회), 「삼원연수서」(2회), 「사림광기」(2회), 「수친양로서」(1회), 「비위론」(1회), 「신은」(1회), 「산거사요」(1회)는 『동의보감·신형』에 산재하여 인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의보감·신형』에서 『의방유취』의 「양성문」뿐만 아니라 「오장문(五藏門)」을 비롯한 『의방유취』 다른 문의 내용도 함께 참조했을 것이다.

양생의학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도가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도교의 본질은 애초에 신선술이며, 이를 완비시키기 위해 의경(醫經)·경방(經方)·방중술을 채용하였다. 또한, 음양오행설, 노자 등 철학 사상을 흡수하여 원래의 종교에서 체계를 갖추고 도교 신자에게는 도교의학 자체가 되었다.⁶⁰⁾ 『의방유취·양성문』에서 도교의학이 수용된 것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도가의 내단·외단학을 가리지 않고 연단술, 단약, 수련 가결(歌訣), 주문(呪文) 등등 빠짐없이 「양성문」에 들어 있다. 그러나 『동의보감·신형』은 『의방유취·양성문』의 「수진비결」(7회), 「금단대성」(7회) 등 내단수련(內丹修練)에 속한 내용만 발췌하였다. 이것은 도교적 후생실용주의(厚生實用主義)를 채용한 것이라고 미키 사카에(三木榮)가 지적한 바 있다.⁶¹⁾

III. 결론

『의방유취』는 권199부터 권205까지 7권에 달하는 분량으로 「양성문」을 설정하여 의학 문헌과 도교 문헌, 양생 문헌을 모아 양생 이론, 연단술, 양성, 양생 복약법, 양성금기, 섭생 및 도인법의 순서대로 수록하였다. 도가 양생에 대해서는 내단과 외단 내용이 모두 실려 있다.

『동의보감·신형』은 『동의보감』의 총론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가장 중요한 문이다. 『동의보감·신형』은 양생의학 측면에서 『의방유취·양성문』을 많이 참고하여 인용하였음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동의보감·신형』에는 『의방유취·양성문』의 7권 내용이 모두 인용되어 있다. 『동의보감·신형』의 『의방유취·양성문』에 대한 인용 특징으로는 첫째, 도교 관련 문헌 중 내단 수련에 속한 내용만 채택하였다. 둘째, 도교 양생 관련 문헌은 원문을 편집하여 일부 내용만 채택하였다. 셋째, 의학 문헌은 원문을 발췌하여 의론을 다시 구성하였다. 넷째, 출전 표기 중 『의방유취·양성문』의 인용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다섯째, 『의방유취·양성문』에 수록 문헌을 직접 원서로 참고하여 인용한 경우도 있다.

본 연구는 양생의학에서 『동의보감·신형』과 『의방유취·양성문』의 연관성을 고찰하여, 『동의보감·신형』이 『의방유취·양성문』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특히 『의방유취·양성문』의 「천금방」과 「구선험인심」이 『동의보감·신형』에 가장 많이 인용되었음을 발견하였다. 『동의보감』은 책의 시작에 「신형」이란 문을 두어 양생과 가장 밀접한 내용을 집어넣을 정도로, 양생의학적인 색깔이 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양생의학의 시점에서 조선 시대 가장 중요한 두 의서인 『동의보감』과 『의방유취』에 주목하여 두 의서의 원문 비교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의방유취』가 『동의보감』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가 『동의보감』과 『의방유취』의 의사학적 계승 관계를 밝히는 데에 참고가 되기를 바라며 향후 『의방유취』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동양의과대학. 『의방유취』. 서울:동양의과대학. 1965.
2. 盛增秀等重校. 『醫方類聚 重校本』. 北京:人民衛生出版社. 2006.

60) 三木榮. 『補訂 朝鮮醫學史及疾病史』. 京都:思文閣出版. 1991:197.

61) 허준은 의학의 본질과 진리를 밝히기 위해 사실에 기반하여 학문을 탐구하며 자신이 뒤의 도학을 빌려와 '정·기·신'으로 의학의 궁극적 문제를 천명하였다. 허준은 되도록 근거 없는 것을 배척하고 실증적인 일반 이론과 기술을 채택하였다. 다시 말해, 『동의보감』은 당시 종교 철학, 특히 도교의 본질을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학 제반 이론을 융합한 실용적인 의서로 편찬되었다. (三木榮. 위의 책. p. 197-198. 三木榮. 「朝鮮の道敎醫學——『東医宝鑑』から見る」. 朝鮮學報. 1960:16:75.)

3. (朝鮮)世宗 御編;世祖 御校. 『醫方類聚』. 北京:九州出版社. 2002.
4. 世宗命編. 醫方類聚[마이크로 형태자료]. 東京:宮内廳書陵部. 1998.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실 No. M古3-1998-1-34=復)
5. 허준. 『(원본)동의보감 <신증판>』. 서울:남산당. 1987.
6. 『欽定四庫全書』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 香港:迪志文化有限公司. 1999.
7. 유효동, 노중례, 박윤덕. 「향약집성방3」: 金信根 主編. 『韓國醫學大系5』. 서울:驪江出版社. 1992.
8. (明)朱權編. 「活人心二卷/明刊本」. 『子海珍本編——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珍藏子部善本 26 醫家類』. 台北:台灣商務印書館股份有限公司. 2013.
9. 明·朱權 編著;葉明花, 蔣力生輯著. 「活人心法」. 『朱權醫學全書』. 北京:中醫古籍出版社. 2016.
10. 元·李鵬飛 編. 「三元參贊延壽書」: 曹洪欣總主編. 『中醫養生大成 第1部 養生通論 上』. 福州:福建科學技術出版社. 2012.
11. 張繼禹主編. 『中華道藏 第23冊』. 北京:華夏出版社. 2014.
12.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동양의학대사전』. 서울: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13. 胡孚琛主編. 『中華道教大辭典』. 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14. 김남일, 신동원, 여인석. 『(한권으로 읽는)동의보감』. 서울:들녘. 1999.
15. 김은희. 『고려의학교전해제』. 평양:의학과학출판사. 2014.
16. 三木榮. 『朝鮮醫書誌』. 大阪:學術図書刊行會. 1973.
17. 三木榮. 『補訂 朝鮮醫學史及疾病史』. 京都:思文閣出版. 1991.
18. 김남일. 「鄉藥集成方の 引用文獻에 대한 研究」. 震檀學報. 1999;87:195-213.
19. 신순식, 최환수. 「『醫方類聚』에 대한 版本 研究」. 韓國韓醫學研究院 論文集. 1997;3(1):1-15.
20. 안상우. 「『醫方類聚』의 데이터베이스 構築」. 大田:韓國韓醫學研究院 研究報告書. 1998.
21. 안상우. 「『醫方類聚』가 『東醫寶鑑』編纂에 미친 影響」. 韓國醫史學會誌. 2000;13(2):93-107.
22. 안상우, 김남일. 「韓國 養生醫學의 歷史」. 大韓豫防韓醫學會誌. 2008;12(2):159-167.
23. 정창현, 백유상, 위보영, 장우창. 「『東醫寶鑑』의 精氣神 養生法과 그 특징」.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7;30(1):135-144.
24. 차웅석, 김동윤. 「朝鮮의 主要 國家刊行醫學書의 編制 構成과 疾病分類認識에 대한 概說的 研究」. 韓國醫史學會誌. 2019;32(2):79-90.
25. 劉青. 「朱權『活人心』의朝鮮と日本における伝播——諸本の比較を通して——」. 人間・環境學. 2018;27:237-254.
26. 劉青. 「《醫方類聚》引《活人心》內容初探」. 『跨越邊際的古代東方醫學:對話與互動』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2018:140-145.
27. 篠原 孝市. 「臨床に活かす古典(No.48)養生」. 医道の日本. 2016;75(4):173-175.
28. 瀧澤 利行. 「日本における養生論の文化」. 障害史研究. 2020;1:15-34.
29. 真柳誠. 「目で見る漢方史料館(56) 現存唯一無二の『医方類聚』初版 宮内廳書陵部に蔵せられる朝鮮古活字本」. 漢方の臨床. 1992;39(10):1248-1250.
30. 真柳誠. 「目で見る漢方史料館(58) 喜多村直寛による『医方類聚』の復刊」. 漢方の臨床. 1992;39(12):1488-1490.
31. 三木榮. 「朝鮮の道教醫學——『東醫寶鑑』から見る」. 朝鮮學報. 1960;16:71-76.
32. 강세구. 「醫方類聚의 養生門에 對한 研究」. 대전: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